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0월 22일 (제92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조직적인 정신력

조직적인 정신력이 조직적인 군사력을 이끈다.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제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직적인 정신력에 있었다. 영국은 막대한 돈과 막강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조직을 가졌지만 국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탄 비폭력 무저항주의자 간디의 조직적인 정신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간디는 대영제국이 물러간 뒤에 이런 말을 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하다. 조직적인 정신력이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

정신력은 언제 발휘될까? 목적이 확실할 때다. 누가복음 18장에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과부가 나온다. 그녀에게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지만 원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에 강한 정신력을 발휘했고, 마침내 오만하기 그지없는 재판장을 이겼다. 대사도인 바울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받을 의의 면류관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10월 2일,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예수중심교단의 작은 힘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기에 핍박과 모함 속에서도, 더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력이 신념이라면, 믿는 자들의 정신력은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든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뤄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형제들아 나는…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절망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전드라마의 명수이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는 이번 서울시청광장의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반전의 역사를 목도하였다. 지난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2년 6월 7일의 메인스타디움 집회 역시 그러했다. 목사님과 함께 한 수많은 역사들이 돌이켜보면 반전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10월 1일 주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를 두고 모두가 덕담을 나눴다. “내일 성회 당일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비를 보내신 거야.” 그러나 내일은 내일이고 당장 성회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비가

여름을 방불케 하였다. 방송장비 설치를 어느 정도 마치고 눈을 들어 단상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멋진 무대를 완성하여 가고 있었다. 간밤의 영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터라 지금 보는 영상은 마치 순식간의 장면전환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반전드라마로 우리의 답답했던 가슴을 일소에 해갈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영광스런 장면을 목도하게 하셨다.

전쟁기념관 때는 오히려 더했다. 성회 전날 내리는 비는 거의 폭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는 그날 아침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집회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대로 접고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운동장에 나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있었다. 바닥은 여전히 질퍽거리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으며, 마이크 작동도 오락가락하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신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다. 집회를 마치며 모세 목사가 목사님께 아프리카 지도가 그려진 깃발을 드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깃발을 흔들며 찬양하던 영광스런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서울시청광장의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내리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비조차 멈추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광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좀 찾아들던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운명을 적셨다. 한밤중에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가며 준비를 해야 했다. 새벽이 되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 하나 완전히 마쳐진 게 없었다. ‘이래서 과연 내일 제 시간에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암담한 생각이 스멀스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온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그리고 이튿날 성회 당일 이른 아침, 다시 서울광장으로 달려가 간밤의 흔적들을 정리해가며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하늘이 맑게 개어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작열하는 태양은 한

들려고 하는 그 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로 찾아오시곤 하였다.

많은 해외집회에서도 경험했던 일들이다. 2004년 나이지리아(Nigeria) 포트코트(Port Harcourt) 집회 때의 일이다. 집회 전 계속 내린 비로 집회가 열리게 될 운동장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구덩이로 가득했다. 목사님은 낮에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서 물을 퍼내며 집회 준비를 독려하셔야 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물을 퍼내는 작업을 거의 마치고 무대 및 스피커 설치를 해야 하는 마당에 비가 다시 내렸다. 일하던 사람들이 떠난 운동장에 홀로 선 모세(Moses) 목사가 내리는 비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만 해도 도무지 이

아프리카 등 야외집회가 진행되었던 많은 곳에서 우리는 동일한 역사들을 목도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무수한 표적들을 보아온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23:4).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먹구름이 가득한 현실 앞에 내동댕이쳐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반전의 드라마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0:1~8)



이론과 논리로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 그림자가 뒤로 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뚫립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론과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쥐꼬리만 한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피조물의 잣대로 창조주를 판단 말입니까? 언어도단(言語道斷)이지요. 그건 마치 10cm짜리 자 하나만 달랑 들고서 지구의 크기를 재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잣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 논리를 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을 막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모든 면에 아주 쟁쟁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라치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 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3:4~6). 참으로 명예로운 호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간판과도 같았던 종교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들을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전력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될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들은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빌3:8~9).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6:14). 이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니요’가 없이 오직 ‘예’만 하며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지식이나 이론,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

몬, 곧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씀을 전하시

고

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테랑 어부인 시몬의 이론이요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그물을 내려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물을 접는 게 최선입니다. 제 어부 경력이 열만데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혀 다른 배를 불러 두 배에 채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내려놓은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가 된다고 하였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15:5).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봐도, 아내를 봐도 너무 늙어 생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고, 첩 하갈에게서도 자식을 봤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해와 상식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실 줄로 생각한지라”(히11:19).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이 나 경험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창22:17~18).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요11).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어 냄새까지 난 자가 동여맨 채로 나와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걷고 싶다고 하자 예수님은 물 위

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동하자 파도가 겹났고, 결국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14:31)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이 높으면 음지가 깊다

그렇습니다. 이론이나 논리를 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라고 하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잣대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과 이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이 높으면 음지가 깊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중에 이해했듯,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초등학교를 버리고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1~2).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템플턴의 투자원칙

성공적인 투자업적보다는 오히려 고매한 인격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박애정신으로 더욱 존경받았던 템플턴의 투자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실수로부터 배우라.’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말로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번의 실수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감정에 이끌려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참은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할만한 회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회사가 매우 뛰어난 회사라 해도 그 주가는 고평가돼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실제 드러나 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내부자 정보에 솔깃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늘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고 하신 것처럼, 투자의 세계에서 결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을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고 하신 말씀은 투자 현장에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lmkwdf@hot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나비의 날갯짓

1999년 4월 20일에 충격적인 총기사고가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남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지고 온 총기로 900여 발이나 난사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던 캐시 버넬과 여러 명의 학생들, 그리고 교사 한 명을 죽였다.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양심을 지키려 했던 캐시 버넬은 포악한 무신론자 학생들의 총기난사에 희생제물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캐시 버넬의 신앙을 본받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미국의 십대들은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Yes, I believe in God)’라는 캐시 버넬의 고백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학교마다 국기 게양대 앞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고, 방황하던 십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천 5백 명의 십대들이 모였고 이로 인해 마약, 술 등으로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의 십대 크리스천들을 일깨우는 운동이 번져나갔다.

셋째,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스스로 터득한 일련의 투자원칙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런 투자원칙을 불변의 진리처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나 경제적, 정치적 환경도 그렇듯이 모든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상승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된 투자의 성공에 도취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신’은 위험하고 그릇된 것이지요.

실패하지 않는, 혹은 변하지 않는 투자원칙이란 결코 없습니다. 투자원칙이란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언제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유연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에 새로운 대답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도전적인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영(靈)적인 힘에 달려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자신의 영적인 자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인생여정에서 만나게 될 숭한 변화에 훌륭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기도 중에 문득 ‘내가 선불 맞은 멧돼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썩 내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여 몇 번이고 반복하여 기도드렸다.

선불의 ‘선’은 ‘설다, 어설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선불 맞은 멧돼지’는 총을 쏘맞고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멧돼지를 이른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불을 받아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의 드러남이다.

오직 직진하며 무서운 속도로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는 저돌성, 내 한 몸 돌아보지 않고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열정을 지니고 싶다.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맹목적으로 달리는 멧돼지. 내 연약한 심성이 그리웠으면 하고 닥고 싶은 마음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8:35).

걱정, 근심 틈탈 데 없고, 주님이 설정하신 풋대만을 보고 달리는 삶. 문득 멧돼지가 떠오르니 그 에너지를 주께 간구하게 된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 별스럽지 않은 머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육체 또한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소서. 불로, 불로 뜨겁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내 자랑거리를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내 영이 온전히 깨어나 성령과 연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멧돼지 같은 저돌성과 용맹성을 가지게 하소서. 죽도록 달리다, 달리다 문득 서서 돌아보면 그 곳이 천국이게 하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반드시 이기리로다!

1940년 3월 24일 주일 아침, 교회 안팎과 출입문에는 일본 경찰들이 즐비하고 교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교회는 주기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평양의 산정현교회로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목사와 성도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모였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한 집사가 찬송가를 들고 강단에 올랐다. 그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를 부르기 시작한다. 800여 명 성도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일본 경찰들은 당황한 듯 성도들에게 ‘그만하라’고 제지한다. 그러나 아무도 굴하지 않는다. 결국 찬송을 부르던 주기철 목사와 성도들은 체포되고 교회는 폐쇄됐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와 ‘일사각오’정신을 깨우쳐준 이 찬송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다. 루터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문제들과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발매하여 팔던 성직자들의 만행을 비판하는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다. 이에 교황과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저서들을 적그리스도

의 교서로 규정한다. 그의 죄를 철저히 묻는 보름스 제국의회 종교재판 전날, 루터는 그의 추종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이시라(시46:1)’는 성경구절에 의지하여 찬송을 만든다. 이 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이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 앞에도 물러서지 않고 성직자들만 보던 라틴어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때마침 인쇄술의 발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가르침 아래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과 박해에 끝까지 대항한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개신교회(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올해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이다. 루터와 우리들에게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힘차게 찬양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제9차 기도성회로 빛나는 예수중심교단



제9차 국
가와 민족
의 평화를
위한 기도
성회는 하
나님의 뜻
으로 이뤄
진 명품 기
도성회였
다. 대한민

국의 심장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전무후무한 사자후였다. 이 성회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몰두하신 목사님께 하나님도 감동하시어 채청한 날씨로 응답해주셨다. 총회장 목사님의 열정적인 준비기도가 없었다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리라 믿는다. 제9차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는 대성공이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 심장부를 강타한 총회장 목사님의 명성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부언하고자 함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세를 몰아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등 지방을 휩쓸고 그 다음은 판문점에서 북녘을 향해 하나

님의 복음의 빛을 전파시키는 것도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장담한다. 태극기 물결 속에 뒤덮인 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거국적 행사를 대담하게 성공적으로 치른 예수중심교단 예수중심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격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모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옳다. 할렐루야!
강릉예수중심교회 김성춘 장로

:: 성경에서 배운다 ::

하나님을 감동시킨 성회

10여 년 전, 백두산과 두만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 국경을 경비하는 군인들을 멀리서 목격한 뒤 북한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북한직원들을 만났는데 그들 모두 신기하리만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중국친구들이 농을 건네도 도무지 웃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는 그들에 대해 동석(同席)한 중국인이 말하기를 외부에 노출되는 북한 사람들은 철저히 사상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 자체가 부모, 형제간에도 서로를 감시하고 서슴없이 밀고하는 시스템 이기에 감정 표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 북한에 직접 다녀왔는데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어 자유와 축복, 번영을 누리고 있는 한

국과 북한의 대조적인 상황’ 정도에만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긍휼함과 간절함은 작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탄압 소식이 전해지고 남한은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관용하는 풍조가 되어 급기야 우리 교단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9차에 걸쳐 여시며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와 회개를 받으시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기도성회는 ‘다시없을 황금연휴’라며 들떠있는 세상과 반대로 ‘다시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라는 믿

음으로 금식과 작정기도로 매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시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집회를 앞두고 들려오는 작정기도와 금식, 물질과 헌신의 일화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단은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매 집회가 그랬지만 이번 집회는 그래서 유난히 은혜가 넘쳤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얼굴에도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럽다는 말이 여기저기 들리고, 수시간에 걸쳐 차로, 비행기로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에 피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회를 섬기는 운영팀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많은

분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내내 산만함이란 찾을 수 없었으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집회를 섬긴 모든 분들의 수고와 참석한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겼음을 확신하며, 기도성회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김일성 광장에서 ‘평화통일 감사성회’를 열 수 있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길 것을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renming@daum.net

해외여행 경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
교에 다니
던 어느 날,
이시대 목
사님께서
저희 집에
심방에 배
를 오셨습
니다. 예배

적인 교육관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사님은 역시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신년축복성회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음성과 외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을 동전까지 긁어모아 그 다음 날 바로 목사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모아온 전 재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회장 목사님께서 “너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디에서든지 ‘저의 꿈은 세계적인 사업가’라고 입술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주위 사람들로 부터 ‘교육관이 언제쯤 지어질까’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총회

장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고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래 꿈이란 바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세계적인 교육관을 제가 지어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으면 돈이 없어질 줄 알지만 알고 보니 심으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나중에 몇 배 이상으로 넘쳐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보니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도중 우연히 한 세무서장님께 커피 한잔을 대접해드렸더니 감동을 받으셔서 저녁식사와 용돈을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3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 사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고 집으로 왔는데, 며칠 뒤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 한 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원하는 메이커의 옷 한 벌에 신발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

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너 해외여행 보낼 돈이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만약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네 스스로 돈을 모아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저는 기도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스스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은 돈으로 군 입대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는 도중,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하시면서 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갈 때가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여행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모아둔 여행경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작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대학부 강한성